

전문가
인터뷰

기업표준화 분야 **김영균** 삼성전자 전무



정보통신 분야의 영역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IT산업은 글로벌화가 가장 보편화된 분야인 동시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분야로 특허 분쟁 및 로열티 수익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 표준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김영균 삼성전자 전무는 세계 표준 기술 관련 로열티 지급 비중이 한 자릿수를 넘어 두 자릿수에 육박할 경우 더는 수익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조차 어려워진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부·TTA에서, 나머지는 산업자원부·표준원으로 나뉘어져 있어 양자간 조율기능과 중복영역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및 관심 부족도 해결과제로 꼽았다.

김 전무는 이를 위해 “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며 “각종 단체표준과의 상호 일관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화 관련조직과 기능도 재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 Q | IT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이 되면서 국제 기술표준 활동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지금 시점에 IT 분야의 국제기술표준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 다른 산업과 달리 IT는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앞으로 IT산업에서는 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허분쟁 및 높은 로열티가 대표적인 예다. 향후 산업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국제표준 활동을 통해 IPR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 Q | 우리나라는 TTA 등 국가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각각 무엇인가?
- A | 정보통신 분야는 TTA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국내 및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본

은 TTC와 ARIB으로 양분돼 있고 미국은 TIA, ATIS, IEEE 등으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TTA에서 인증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각종 포럼을 지원하고 학계·중소기업의 표준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는 정통부·TTA에서, 나머지는 산업자원부·표준원으로 나뉘져 있어 양자간 조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Q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을 각각 제안한다면?

A KS(한국표준)와 각종 단체표준과의 상호 일관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표준화 관련 조직과 기능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표준활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 다만 투자 후 과실을 경험하기까지는 적어도 5-6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통신 운영사업자들도 차세대 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라도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국익을 위해서도 제조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Q 표준화와 더불어 시험·인증, 호환성 확보, 지적재산권 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연관돼 있다. 선도적인 표준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제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

A 사업전략, 표준전략, 인증 및 호환성 시험, 지적재산권 관리 등은 과거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됐으나 현재는 상호 연관성이 커지는 추세다.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계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Q 최근 우리나라가 얻은 최고의 표준화 성과는 무엇인가? 또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시사점은?

A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와이브로(WiBro)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다가 IEEE 802.16과의 연계로 방향을 전환, 잠재 시장을 넓히고 표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다.

Q IT분야의 기술 표준 전문가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영어로 웃으면서 기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 분야를 폭넓게 알고 관심 분야를 깊이 아는 기술자면서 시장과 사업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끈기와 원만한 대인관계도 필요하다.

Q 표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A 기술, 영어는 필수며 추가적으로 사업전략, 협상전략, 사례연구, 대인관계, 특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험자 및 전문가를 자문, 고문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Q 표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귀하가 지금까지 올린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그 성과의 산업적, 경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A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이 미흡했던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와이브로(WiBro)의 성공적인 국제 표준을 통해 해외 수출 가능성에 일조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 Q | 표준전문가의 업무와 능력을 구체화하는 것은 표준전문가 양성정책을 펴는 데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전문가로서 귀하의 전문성과 경쟁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A | 위성에서 출발해 이동통신, 방송, 응용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표준 업무로 확대해 왔다. 그간 위성의 ITU 활동을 통해서 쌓아왔던 인맥이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
- Q | 글로벌 기업의 표준화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 A | 노키아는 개방형 표준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기업이다. 표준화를 통해 과이를 먼저 키운 다음 나눠 먹는다는 전략이다. 에릭슨은 자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표준 활동이 원칙이다. 방침이 정해지면 사업자를 동원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퀄컴은 전략적 표준 활동이 뛰어나다. 기술개발, 표준활동, 주파수 확보, 응용서비스 등의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도코모는 사업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표준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차세대 서비스를 스스로 창출, 주도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 Q | 내년 이후 글로벌 IT기업들의 표준화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주시해야 할 움직임과 그 의미는?
- A | IT 대기업들의 인수 합병으로 선두그룹과의 역량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차세대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공동보조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표준화가 확대되고 망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새로운 참여자들이 시장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